"용기와 사랑만을 담아"
작년 여름 제 머리말에 화답해주듯 한 선생님이 보내주었던 편지의 마지막 인사로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벌써 아침저녁으로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올 것 같은 이때쯤이면 (특히 올해는 사전 티오가 많이 줄어) 선생님들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떤 말도 뻔한 격려나 동기부여가 될까 썼다 지웠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말과 성경말씀들이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던
여러 선생님들의 말들을 읽어보면서 용기를 내어 써 봅니다.

(올해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새벽예배에서 이번 주 설교는 내내 사사기 6장~7장에 걸쳐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제가 임용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맡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고민하던 시기에 주셨던 말씀이라
저도 다시 새롭게 듣고 있고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경험도 없는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3만이 넘는 강한 군대를 대적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기드온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반복됩니다.
이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확신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설교 말씀에서는
연약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끝내 놓지 말아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연약해질 때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 더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처럼
남은 시기동안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곳으로 끊임없이 되돌아 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전쟁의 상황과 그 상대는 너무 크고 강하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확신이 작아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마다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디 당부 드려요.
선생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던 이 시험 혹은 강사의 커리큘럼을 공부하며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선택을 후회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마지막까지 나의 행함으로 지켜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저의 하반기 강의를 기다려주셨던 선생님들께는
올해 강의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마음으로 결전의 날까지 항상 응원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용맹스러운 용사"인 선생님들께
2021. 8. 20일날 민쌤 드림

「사사기 6:12」

그때, 주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u>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u>."
스탠다드 쉬운말 성경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u>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u>." 하자,
킹제임스 성경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 센 용사여**, <u>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u>"하자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u>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u>."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u>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u>.
When the angel of the LOAD appeared to Gideon, he said,
"<u>The LOAD is with you</u>, **mighty warrior**."
NIV 한영해설 성경